

UK P&I CLUB 

2012 October Review

재무 실적

UK 클럽은 인터내셔널 그룹에 소속된 클럽들중 재정적으로 우수한 클럽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동안 클럽의 자금은 미화 800만 달러가 증가한 미화 4억 9,400만 달러로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자라왔습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 클럽에 소속된 선주 소유 용적 톤수가 1억 1,600만 GT가 넘으며, 이 수치는 유보금과 자본(각 GT당 미화 4.23달러와 유보금 비율 167%)을 나타 냅니다. 따라서 UK 클럽은 인터내셔널 그룹에 소속된 클럽들 중에 여전히 재정 상태가 우수한 클럽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발생한 클레임 실적과 더불어 2012년 보험년도 상반기에 이루어낸 우수한 투자 실적이 유보금과 자본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번 October Review 간행물에 보도 되었고 2012년 Review of the Year에서 이미 예측 되었듯이 클럽은 2012년 보험년도 내 클레임 경비 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16억 달러

총 자산

4억 9천 4백만 달러

유보금과 자본

4.23 달러

유보금/gross ton당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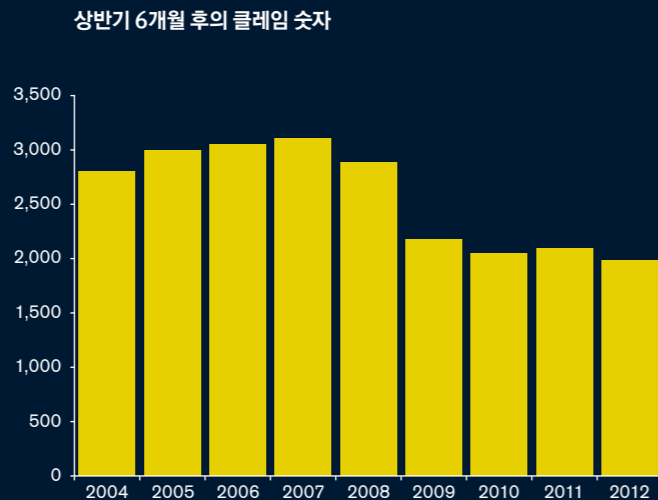
유보금 비율

재무 실적 하이라이트

재정년도로 보았을 때, 지난 두 해의 이재율은 100% 이하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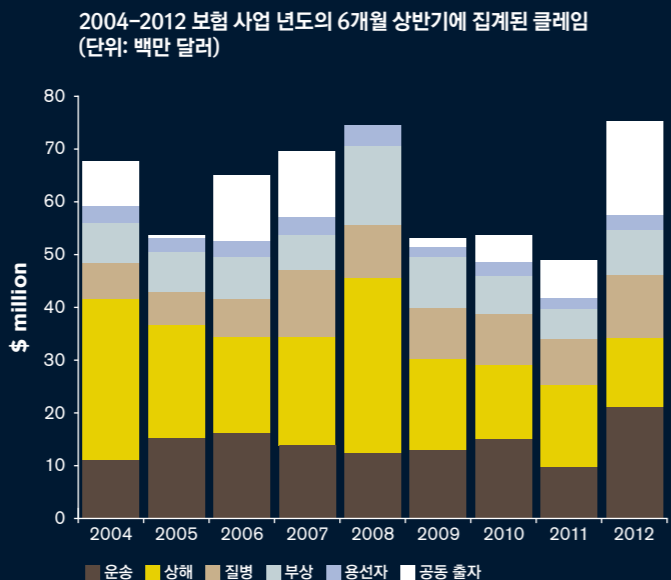
클레임 빈도 (Claims frequency)

- 불경기로 인한 클레임 빈도는 여전히 낮은 편임
- 2012년 현재까지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클레임 빈도는 늘어남
- 해상 운송 마켓이 살아 나면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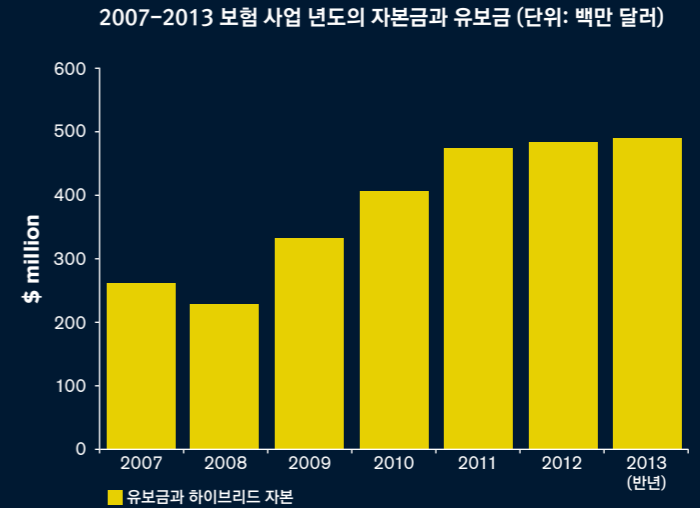
클레임 가치 (Claims Values)

- 2012년 클레임들이 2011년보다 높음
- 2012년은 미화 1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클레임들이 많음
- 2012년은 몇 년간의 푸-올 클레임 중 가장 높은 한해임
- UK 클럽이 푸-올에 가진 좋은 실적은 미화 100만불 달러 대변 잔고로 유지됨
- 2011년 보험년도는 특별히 좋은 한해임



재무 건전성 (Financial strength)

- 상반기 정산 기준으로 유보금과 기본 자금이 미화 4억 9,400만불로 증가
- 자본과 유보금 \$4.23/GT
- S&P 자본 모델에 자본금이 AA등급
- S&P 신용 등급 A-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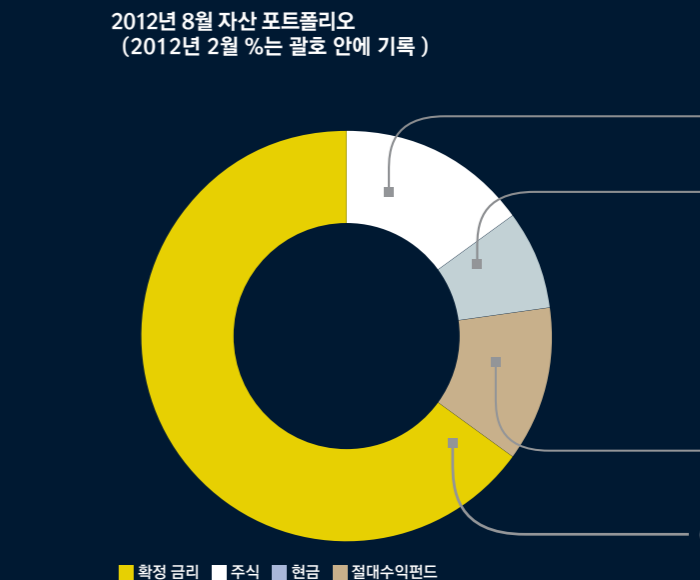
언더라이팅 원칙 (Underwriting discipline)

- 지난 이 년간의 재정 년도 이재율이 100% 미만 기록
- 2013년 재정 년도의 이재율 또한 100% 미만으로 기록 될 것으로 예상 됨
- 지난 4년 보험 사업 년도의 평균 이재율도 100% 미만 기록
- 상반기 6개월 정산 시점에 클럽 tonnage 는 1억 1,670만불 GT
- 언더라이팅 원칙 고수



투자 포트폴리오 (Investments portfolio)

- 투자 정책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진행 되고 있음
- 자본금 지키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Equity holdings을 15%로 증가시키므로써 더 우수한 실적 획득을 계획함
- 상반기 투자에서 우수한 실적을 획득함
- 2012년 8월 20일 이후에도 투자 이익을 얻음



언더라이팅 (Underwriting)

클럽이 균형잡힌 언더라이팅을 지속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클럽은 절제된 언더라이팅의 접근 방식과 리스크 선택을 지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4년간의 보험년도의 성과가 이재율 100% 이하를 기록하는 안정적인 언더라이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이년간의 이재율 또한 100% 이하로 기록 되었습니다. 만약 2012 재정년도가 예측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3년 연속 균형 잡힌 언더라이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클럽은 회원들과 전체 시장에서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2012년 2월 20일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용적 톤수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 클럽은 1억 1,670만불 GT의 달하는 선주 소유 용적 톤수로 성장하였습니다(2012년 2월 20일 수치는 1억1,240만불GT임). 하지만, 클럽은 성장에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개 받은 비즈니스에서 평균적으로 약 15% 톤수 정도를 클럽의 언더라이팅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에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매니저들은 해운 시장에 속한 대부분의 분야들이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앞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의 전망 또한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 시장 침체기에도 여전히 인상되고 있는 클레임 비용을 염두에 두고 현재 클레임 경험과 클레임 전반에 깔려 있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기록상 최저 클레임 빈도에서 미래에 월등하게 늘어날 클레임 빈도에 대비하기 위해 클럽은 프리미엄을 인상 시켜야 합니다. 만약 프리미엄이 현재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해운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날 잦은 클레임 빈도에 따른 여파로 인해 큰 비중의 프리미엄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소폭의 프리미엄 인상 또는 추후 훨씬 더 타격이 크고 높은 프리미엄 인상, 둘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두번째 선택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클럽 회원들에게 알맞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클레임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불안정한 시기에 클럽이 언더라이팅 실적에서 나오는 결손금을 투자 이익에서 보충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럽이 균형 잡힌 언더라이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보험

2013년 보험년도를 위한 인터네셔널 그룹의 재보험 프로그램 가격이 인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있었던 COSTA CONCORDIA와 RENA라는 두개의 비싼 사상자 사고는 푸-올과 인터내셔널 그룹에 손배 재보험의 수치를 뛰어넘는 비싼 클레임으로 기록되었으며, 2013년 정책년도에 재보험사들이 가격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클럽은 급격히 늘어나는 클레임 비용의 부담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총 재보험 커버를 재검토 갱신할 것입니다. 클럽의 자체 재보험 실적은 클럽의 예상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전체 위험 운영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Investments)

클럽의 투자 정책은 조심스럽게, 기본 자본금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의 보험년도 상반기에는 UK 클럽은 이사회에서 벤치 마크로 세웠던 기준과 동일한 미화 천만 달러(상반기 결산 시점에서 1%의 투자 이익금과 동등한 수치)의 투자 이익을 얻었습니다. 클럽의 투자 정책은 여전히 조심스러우며 본금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Holdings of equities) 또한 올해 equity마켓의 좋은 수익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0%에서 15%로 늘렸습니다. 또한 비슷한 수치의 클럽 채권 보유(holding of bonds)를 정부 채권 수익률이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을 때 줄였습니다.

상반기이후에도 클럽은 계속해서 투자액에 이익을 얻었으며, 이 상태가 2013년 2월 20일까지 유지된다면 클럽의 재정 증명서에 투자 보너스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기에는 연말까지 이와 같은 우수한 투자 실적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클레임 실적 (Claims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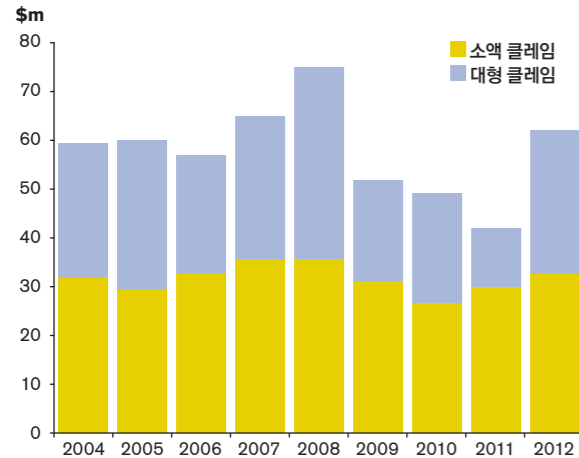
2012년은 UK 클럽에게 금액이 높은 클레임들이 많았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2012년 정책년도에도 해운 불황의 영향으로 여전히 클레임 빈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2011년과는 다르게, 클럽은 자체 보유 범위가 미화 50만 달러에서 미화 8백만 달러에 속하는 큰 클레임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푸-올은 6개월 정산 기준에서 집계된 미화 천팔백만 달러(2011년에는 6개월 시점에는 미화 7백만 달러)에 달하는 7개의 클레임들로 인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UK클럽은 여전히 푸-올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변 잔고에 신용 금액이 6개월 시점에 미화 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푸-올을 보호할 수 있게 재보험 커버를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클럽이 푸-올에 내야 하는 분담금 현재의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2012년 정책년도 6개월의 시점에서 클럽은 푸-올 클레임을 겪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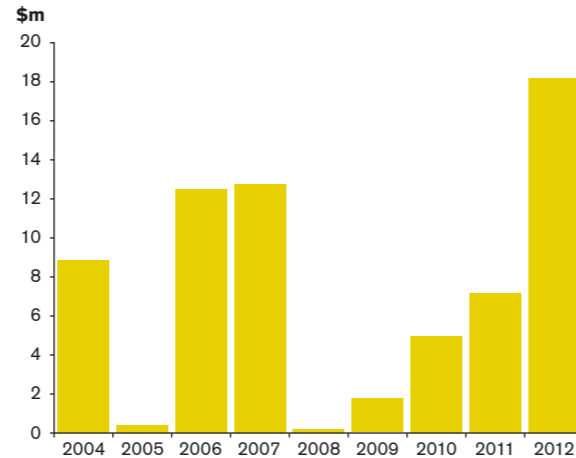
UK 클럽에겐 2012년은 대체적으로 비싼 클레임이 많은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정산 결과에 의하면 집계된 클레임의 결산 금액이 미화 8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2011년 같은 시기에는 미화 4천 9백만 달러였음) 따라서 2012년에 겪고 있는 클레임 증가에 알맞는 대비책을 꼭 마련하여 클럽은 균형잡힌 언더라이팅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클레임 경비 상승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몇 가지의 클레임이 물가 상승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제 불황이 시작되었던 2008년을 돌아보았을때, 클레임의 빈도는 확연하게 줄어 들었으나, 클레임 각 건의 평균 비용은 늘었습니다. 2008년에는 미화 1만 달러에서 미화 2백만 달러 사이에 있는 모든 클레임 중에서 각 클레임당 클럽이 지불하는 순 비용은 미화 2만 3천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이 경비가 미화 3만 달러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2년 8월 20일 기준 2/4분기 보유 클레임 금액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8월 20일 기준 2/4분기 푸-올 기부 클레임 금액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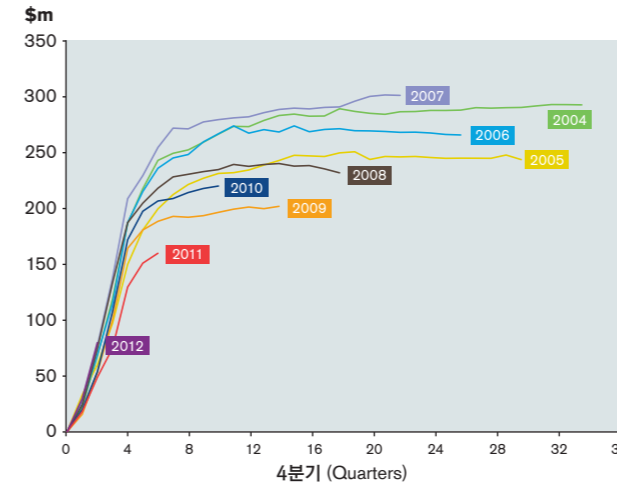
가장 최근 정책년도 사이 클레임들은 낙관적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상반기 결산 후 클레임 유보금 방출을 가능케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클레임을 살펴 본다면, 2008년의 상병 클레임에 따른 클럽의 평균 클레임 비용이 대략 미화 만 9천 달러였습니다. 2012년에는 이 비용이 미화 2만 8천 달러로 올랐으며, 이 수치는 지난 5년 동안에 50%에 육박하게 증가된 비용이며, 각 클레임마다 일 년 평균 9%의 비용 인상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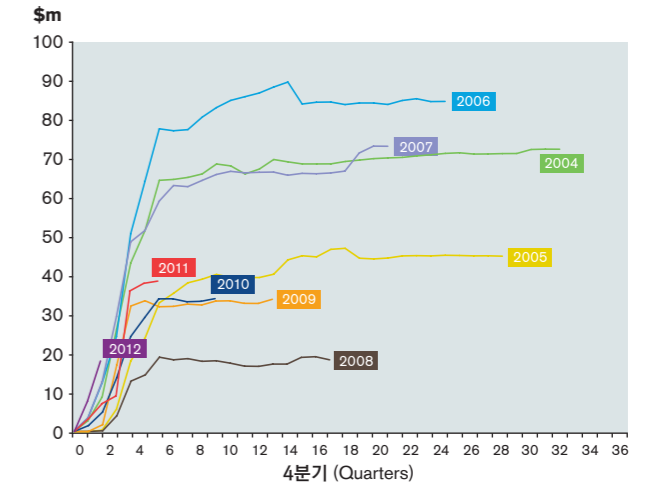
2012년 Review of the Year 간행물의 2011년 정책년도 결산 보고를 보면, 2011년 정책년도에서 보이는 낮은 클레임의 경비 소요의 원인은 불투명하였으나 이러한 클레임이 미래에도 계속 진행 되리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 정책년도 중간 시점에서 보았을때, 2012년의 클레임은 2011년도 이전 몇 년간의 클레임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던 해운 시장 불황속에 나타난 클레임 흐름을 따르지 않는 이례적인 한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면, 최근 몇년간의 정책년도내에 클레임은 호전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년도 중간 시점에 클레임 유보금의 방출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에 긍정적인 발전이 선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클럽의 프리미엄 조건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의 유보금 방출이 있었지만 클럽의 유보금 정책은 여전히 빈틈없고 탄탄합니다. 보험 통계로 보면 클럽의 유보금은 75-80번째 백분위수(percentile)에 속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기준 보유 클레임 금액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8월 20일 기준 보유 푸-올 클레임 금액 (단위: 백만 달러)



클럽이 향상된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사회, 매니저들과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이 서로 잘 결합 되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자산

클럽은 2012년 8월 20일 기준으로 미화 1.6 조 달러가 넘는 재산과 유보금 그리고 자산금 미화 494백만 달러를 토대로 탄탄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클레임과 투자의 흐름에 따라 상반기 결산에서 볼 수 있었던 자산 수치의 증가가 한 해 마무리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럽은 S&P 자산 모델의 AA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한 자산 수준 유지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클럽이 국제 지급 여력을 이행해내기에도 충분한 자산이 있음을 확신시키고, 국제 지급 여력 조건으로 필요한 버퍼 역할 또한 수행 가능합니다. 클럽은 여전히 자산 체계안에 하이브리드(hybrid) 자산으로 미화 1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hybrid) 자산은 클럽의 대차 대조표에 소유 자산으로 금융 위원회(Financial Services Authority)와 S&P의 인증하에 작성되며, 회원들의 국제 지급 여력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자금의 액수를 줄여 클럽의 국제 지급 여력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클럽 개편

지난 번에 발표했듯이, 클럽은 국제 지급 여력의 일환으로 기업의 전체 구조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UK(Bermuda)는 더 이상 회원들의 기본 보험 업자가 아닌 회원들의 기본 보험 업자인 UK(Europe)의 재보험 기관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전체 개편은 여러 개의 분리 기관들을 줄이고, 경영 구조를 강화시키고, 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클럽이 국제 지급 여력 규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 있었던 주주 총회에서 멤버들의 승낙으로 클럽 개편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런던과 버뮤다에서 법원으로부터 개편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2013/14 보험년도의 시작에 맞추어 클럽 개편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olvency 2 국제 지급 여력

클럽은 국제 지급 여력 규제에 따른 다른 준비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금융 위원회(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클럽 내부 모델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클럽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 지급 여력 규제의 실행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

작년 말 후부터 이사회는UK 클럽의 관리에 포커스를 두며 전체 모임과 더불어 다양한 규모의 위원회를 만났습니다. 클럽의 성장된 모습은 이사회와, 매니저들 더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융화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UK 클럽은 해상 선주 보험 선주자로서 앞장서 나아가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UK P&I CLUB



UK P&I CLUB
IS MANAGED
BY **THOMAS
MILLER**

Thomas Miller P&I Ltd
London
Tel: +44 20 7283 4646
Fax: +44 20 7283 5614

Thomas Miller (Hellas) Ltd
Piraeus
Tel: +30 210 42 91 200
Fax: +30 210 42 91 207/8

Thomas Miller (Americas) Inc
New Jersey
Tel: +1 201 557 7300
Fax: +1 201 946 0167

Thomas Miller (Hong Kong) Ltd
Hong Kong
Tel: +852 2832 9301
Fax: +852 2574 5025